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관계

이외선¹, 구미옥^{2*}

¹창신대학교 간호학과, ²경상대학교 간호대학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Lee Oi Sun¹ and Gu Mi Ok^{2*}

¹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2년 1월 5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WIN18을 이용하여 빈도,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이 높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지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Subjects were 184 associate nursing students(2nd grade)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 -report questionnaire from jan 1 to february 29, 2012.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18.0. Emotional intelligence were significantly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And the higher emotional intelligence was showed the higher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and the lower stress of clinical practice. Therefore, To increase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and to decreas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test the program for improving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linical competence, Communication skill,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실무 현장에서 요구하

는 지식, 기술과 태도 등의 핵심간호역량을 갖추도록 준비시켜 향후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간호사로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1].

간호교육에 있어서 임상실습교육은 실천적 학문인 간

*Corresponding Author : Gu Mi Ok(Gyeongsang Nation Univ)

Tel: +82-55-772-8226 email: mogu@gnu.ac.kr

Received April 18, 2013 Revised (1st May 6, 2013, 2nd May 21, 2013, 3rd May 27, 2013) Accepted June 7, 2013

호학의 특성상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 준비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정이다[2].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총체적인 간호지식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기르며 의사소통능력과 기본간호술을 실제에 적용해보고 문제해결능력을 익힐 뿐만 아니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3]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기본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동안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간호실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간호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임상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으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은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2,4,5].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은 중간수준[6,7]으로 임상실습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맺고 치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며, 임상수행능력은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수준[8,9]으로 나타나 각 의료기관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이 부족한 신규간호사를 위하여 채용 후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높은 것[10,11]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현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가능한 줄여 실습에 임하는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성향 중 긍정적 감정 성향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을 조절하고,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2]. 또한 감성지능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3].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동안 자신의 감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충동적인 행동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대처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지적능력 외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과 진실한 공감능력이 필요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감성지능이 요구된다.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도 2009년 이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구결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대인관계능력을 증가시키고,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14,15]으로 나타나 간호실무에서도 간호사의 지적능력 외에 감성지능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

으로 감성지능과 간호수행능력[16], 감성지능과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안녕감, 스트레스와의 관계[17]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결과 감성지능이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16], 문제중심대처와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17]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1편[18]에 불과하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간호교육에서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스트레스를 파악하고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다.
-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서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도 소재 M시와 J시에 있는 2개교 3년제 간호대학에서 2학년에 재학하면서 임상실습을 6개월 이상 시행한 학생 중에서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다.

표본 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Beauvais 등[16]의 연구에서 감성지능과 간호수행능력의 상관관계가 .26으로 나타난 것을 기반으로 효과크기를 .25로 설정하고, 유의수준 .05, 검증력 .9로 설정하여 G power program으로 계산하였을 때 164명으로 계산되었다[19]. 부실한 응답을 고려하여 총 220명에게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이 부실한 36명을 제외하고 최종 1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조사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성별, 건강상태,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등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3.2 감성지능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을 조절하며, 알고 있는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2]. Wong과 Law[12]가 개발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 도구를 Hwang[20]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의 총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각 하위요인별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2.3.3 의사소통능력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21]. Rubin[21]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 능력 구성개념에 Hur[22]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보완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ur[22]가 수정보완시 Cronbach's $\alpha = .7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9$ 이었다.

2.3.4 임상수행능력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23]. Lee 등[24]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도구를 기초로 Choi[25]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5가지 영역을 측정하여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7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8문항,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잘 못한다’ 1점에서 ‘매우 잘 한다’ 5점의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4]이 개발할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고, Choi[25]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2.3.5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인간의 감정, 사고과정, 그리고 육체적인 상태에 위협적인 영향을 주는 긴장상태로 개인의 욕구충족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걱정이나 근심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써[26],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Whang[27]이 개발한 총 58문항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도구의 수정내용을 보면 Whang[27]의 도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유발요인 58문항을 내용 분류하여 총 8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요인은 환자나 보호자의 부정적 태도, 간호사의 부정적 태도, 간호사의 부적절한 역할모델, 부적절한 실습상황, 대인관계 스트레스, 학생의 지식과 기술부족, 임상지도자로 인한 스트레스, 임상실습시 과제물 및 집담회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이들 8개 요인을 문항으로 바꾸고 임상실습시 느끼는 전반적 스트레스 1문항을 추가하여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간호대학 교수 1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각 문항은 ‘전혀 스트레스 없음’ 0점에서 ‘스트레스 매우 심함’ 10점의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을 위하여 본 연구자가 대상 학생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였으며, 배부된 220부의 설문지중 응답이 불성실한 36부를 제외한 184부(83.6%)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Tukey 검정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은 여학생 167명(91.3%), 남학생 16명(8.7%)였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는 군이 79명(43.2%), '보통이다'는 군이 53명(29.0%), '매우 건강하다'는 군이 42명(23.0%)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과 지원동기로는 '취업률이 높아서'가 71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의 권유로 47명(25.7%), 간호에 대한 신념이 있어서 40명(21.9%)순이었다.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83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58명(31.7%), '만족하지 못한다' 28명(15.3%), '매우 만족한다' 10명(5.5%),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4명(2.2%) 순이었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84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와 '만족하지 못한다'가 41명(22.4%),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10명(5.5%), '매우 만족한다' 7명(3.8%)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6	8.7
	Female	167	91.3
Health status	Very good	42	23.0
	Good	79	43.2
	Moderate	53	29.0
	Poor	9	4.9
	Very poor	0	0
Motivation of admission	High school grade	9	4.9
	Recommendation of parent	47	25.7
	Job possibility	71	38.8
	Belief in nursing	40	21.9
	others	16	8.7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Very Satisfied	10	5.5
	Satisfied	83	45.4
	Neutral	58	31.7
	Dissatisfied	28	15.3
	Very dissatisfied	4	2.2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ied	7	3.8
	Satisfied	41	22.4
	Neutral	84	45.9
	Dissatisfied	41	22.4
	Very Dissatisfied	10	5.5

3.2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39점이었으며, 하위 영역 중 타인감성이해가 3.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감성이해 3.60점, 감성활용 3.28점, 감성조절 3.0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7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25점 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전문직 발전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교육/협력관계 3.31점, 대인관계/의사소통 3.31점, 간호기술 3.24점, 간호과정 3.14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10점 만점에 평균 6.66점이었으며, 임상실습시 느끼는 전반적 스트레스는 7.19점이었다. 하위영역 중 과제물 및 집담회가 7.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사의 부정적인 태도 7.29점, 부적절한 실습상황 6.65점, 학생지식과 기술부족 6.5점, 간호사의 부적절한 역할모델 6.54점, 환자나 보호자의 부정적인 태도 6.25점, 대인관계 스트레스 5.8점, 임상지도자로 인한 스트레스 5.73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N=183)

Variables	Categories	Mean±SD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motional appraisal	3.60±0.60
	Others' emotionals appraisal	3.68±0.53
	Use of emotionals	3.28±0.60
	Regulator of emotionals	3.00±0.63
	Total	3.39±0.42
Communication skill		3.47± 0.39
Clinical competence	Nursing skill	3.24±0.47
	Teaching /Collaboration	3.31±0.61
	Interpersonal relationship/Communication	3.31±0.58
	Nursing process	3.14± 0.46
	Professional attitude	3.33±0.49
Total		3.25±0.42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ttitude of patient/family	6.25±2.54
	Attitude of nurse	7.29±2.10
	Role model of nurse	6.54±2.06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6.65±2.18
Interpersonal relationship/communication	5.8±2.84
Knowledge/skill deficit	6.52±2.24
Cinical practice instructor	5.73±2.74
Assignment report/conference	7.98±1.89
Overall stressor	7.19±1.80
Total	6.66±1.61

3.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은 건강상태,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건강상태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는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매우 건강한 군이 건강하지 못한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4.85, p=.003$). 간호학과 만족도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는 매우 만족한 군이 보통 군, 만족하지 못한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F=5.04, p=.001$),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매우 만족한 군이 만족하지 못한 군, 매우 만족하지 못한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2.69, p<.00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건강상태,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건강상태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매우 건강한 군이 건강하지 못한 군

보다 의사소통능력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3.42, p=.019$).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매우 만족한 군이 매우 만족하지 못한 군보다 의사소통능력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3.20, p=.015$)[Table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성별, 건강상태,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성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5.98, p=.015$). 건강상태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매우 건강한 군이 보통, 건강하지 못한 군보다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2.89, p=.037$). 간호학과 만족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매우 만족한 군이 보통, 만족하지 못한 군, 매우 만족하지 못한 군보다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5.06, p=.001$).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매우 만족한 군이 만족하지 못한 군, 매우 만족하지 못한 군보다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14.03, p<.00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성별,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임상실습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8.14, p=.005$). 간호학과 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만족하지 못한 군이 매우 만족한 군보다 임상실습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3)

Variables	Categories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				
		Mean ± SD	t or F	P	Tukey	Mean ± SD	t or F	p	Tukey	
Gender	Male	3.58±0.47	0.63	.427		3.47±0.45	0.00	.950		
	Female	3.37±0.40				3.47±0.38				
Health status	Very good	3.50±0.46 ^b	4.85	.003	b>a	3.53±0.46 ^b	3.42	.019	b>a	
	Good	3.45±0.37				3.54±0.37				
	Moderate	3.24±0.39				3.36±0.33				
	Poor	3.20±0.43 ^a				3.27±0.28 ^a				
Motivation of admission to college	High school grade	3.43±0.31				3.27±0.34	2.28	.063		
	Recommendation of parent	3.34±0.39	0.62	.646		3.41±0.43				
	Job possibility	3.38±0.43				3.45±0.37				
	Nursing belief /Aptitude etc	3.42±0.43				3.58±0.39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Very Satisfied	3.79±0.45 ^b	5.04	.001	b>a	3.7±0.31	1.72	.148		
	Satisfied	3.46±0.45				3.51±0.40				
	Neutral	3.27±0.32 ^a				3.44±0.40				
	Dissatisfied	3.28±0.38 ^a				3.38±0.32				
	Very dissatisfied	3.42±0.25				3.32±0.23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ied	3.92±0.43 ^b	2.69	.001	b>a	3.73±0.41 ^b	3.20	.015	b>a	
	Satisfied	3.53±0.42				3.47±0.43				
	Neutral	3.36±0.40				3.51±0.37				
	Dissatisfied	3.25±0.34 ^a				3.43±0.34				
	Very dissatisfied	3.24±0.38 ^a				3.13±0.35 ^a				

[Table 4] Clinical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3)

Variables	Categories	Clinical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Mean ± SD	t or F	p	Tukey	Mean ± SD	t or F	p	Tukey
Gender	Male	3.49±0.41 ^b	5.98	.015	b>a	5.58±2.39 ^b	8.14	.005	a>b
	Female	3.23±0.42 ^a				6.76±1.49 ^a			
Health status	Very good	3.33±0.50 ^b	2.89	.037	b>a	6.24±1.93	2.04	.110	
	Good	3.30±0.33				6.62±1.48			
	Moderate	3.11±0.45 ^a				6.93±1.47			
	Poor	3.26±0.46 ^a				7.33±1.56)			
Motivation of admission to college	High school grade	3.44±0.44	0.30	.152		6.89±3.01	1.85	.120	
	Recommendation of parent	3.19±0.42				7.07±1.64			
	Job possibility	3.19±0.42				6.69±1.40			
	Nursing belief/Aptitude etc	3.34±0.38				6.23±1.45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Very Satisfied	3.40±0.61 ^b	5.06	.001	b>a	5.57±1.97 ^b	4.75	.001	a>b
	Satisfied	3.37±0.40				6.32±1.51			
	Neutral	3.15±0.41 ^a				6.91±1.32			
	Dissatisfied	3.04±0.38 ^a				7.36±1.96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ied	3.15±0.10 ^b				7.92±0.88 ^a			
	Satisfied	3.78±0.52 ^b	14.03	<.001	b>a	5.06±1.95 ^b	11.36	.000	a>b
	Neutral	3.44±0.42				6.25±1.63			
	Dissatisfied	3.27±0.31				6.52±1.29			
	Dissatisfied	3.04±0.33 ^a				7.01±1.60			
	Very dissatisfied	2.76±0.60 ^a				9.20±0.69 ^a			

다(F=4.75, p=.001).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차이는 매우 만족하지 못한 군이 매우 만족한 군보다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11.36, p=.000)[Table 4].

3.4.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r=.511, p<.001), 임상수행능력(r=.464,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감성지능과 임상실습스트레스(r=-.246, p<.001)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이 높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낮음을 의미한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N=183)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Emotional intelligence	1			
Communication skill	.511 (<.001)	1		
Clinical competence	.464 (<.001)	.404 (<.001)	1	
Stress of clinical practice	-.246 (.001)	-.300 (<.001)	-.185 (.012)	1

[Table 6]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subdimension,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Variables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EI	r(p)	r(p)	r(p)
SEA	.425	.298	-.220
	(<.001)	(<.001)	(.003)
OEA	.278	.221	-.110
	(<.001)	(.003)	(.137)
ROE	.349	.332	-.197
	(<.001)	(<.001)	(.008)
UOE	.375	.437	-.156
	(<.001)	(<.001)	(.035)

EI=Emotional intelligence,
SEA=Self-emotional appraisal
OEA=Others' emotionals appraisal,
ROE=Regulator of emotionals,
UOE=Use of emotionals
TEA=Total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 하위요인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감성이 해는 의사소통능력(r=.425, p<.001), 임상수행능력(r=.298, p<.001), 임상실습스트레스(r=-.220, p=.003)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자기의 감성을 잘 이해할수록 의사소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이 높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낮은것을 의미한다.

타인감성이해는 의사소통능력(.278, p<.001), 임상수행능력(r=.221, p=.003)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타인의 감성을 잘 이해할수록 의사소통능력 및 임상수행능

력이 높음을 시사한다. 감성조절은 의사소통능력 ($r=.349, <.001$), 임상수행능력($.332, p<.001$), 임상실습스트레스 ($r=-.197, p=.008$)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감성활용은 의사소통능력 ($r=.375, <.001$), 임상수행능력($.437, p<.001$), 임상실습스트레스($r=-.156, p=.035$)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이 높고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음을 의미한다 [Table 6].

3.5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시 1단계에서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던 일반적 특성 변수들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감성지능을 투입하였다.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결과 감성지능의 하위영역 중 자기감성이해($\beta=3.394, p=.002$), 감성활용($\beta=3.394, p=.029$)이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20.6%이었다[Table 7].

[Table 7] Emotional intelligence influencing communication skill (N=183)

Variables	Model 1		Model 2	
	β	t	β	t
Gender	.071	.957	.084	1.267
Health status	.156	2.106*	.064	.942
SNM	.027	.283	.018	.208
SCP	.136	1.440	.021	.236
SEA			.258	3.394*
OEA			.124	1.805
ROE			.129	1.680
UOE			.163	2.133*
ΔR^2			.206	
R^2	.100		.306	
F	3.912		8.488	
P	.002		.000	

* $p<.05$, ** $p<.001$

SNM=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CP=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EA=Self-emotional appraisal
 OEA=Others' emotionals appraisal
 ROE=Regulator of emotionals
 UOE=Use of emotionals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의 하위영역 중 감성활용($\beta=3.564,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11.7%였다[Table 8].

[Table 8] Emotional intelligence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N=183)

Variables	Model 1		Model 2	
	β	t	β	t
Gender	-.051	-.745	-.034	-.538
Health status	.071	1.046	-.011	-.163
SNM	-.043	-.505	-.069	-.859
SCP	.484	5.605**	.411	4.924**
SEA			.085	1.174
OEA			.128	1.954
ROE			.026	.357
UOE			.261	3.564**
ΔR^2			.117	
R^2	.243		.360	
F	14.253		12.219	
P	.000		.000	

* $p<.05$, ** $p<.001$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의 하위영역 중 자기감성이해($\beta=-2.053, p=.042$)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2.7 % 였다[Table 9].

[Table 9] Emotional intelligence influenci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N=183)

Variables	Model 1		Model 2	
	β	t	β	t
Gender	.103	1.462	.114	1.600
Health status	-.088	-1.25	-.078	-1.079
SNM	-.075	-.837	-.082	-.916
SCP	-.298	-3.309**	-.283	-3.038*
SEA			-.166	-2.053*
OEA			-.027	-.368
ROE			-.001	-.007
UOE			.060	.739
ΔR^2			.027	
R^2	.177		.204	
F	9.584		5.573	
P	.000		.000	

* $p<.05$, ** $p<.001$

4. 논의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에서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의사소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평균 3.39점(범위 1-5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국내에서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4년제와 3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18]의 연구에서 감성지능 4.76점(범위1-7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국외 연구에서 감성지능 측정시 Schutte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SEIS)도구를 사용한 Por 등[17] 연구에서 감성지능 124.9점(범위 33-165), Mayer-Salovey-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MSCEIT) 도구를 사용한 Beauvais 등[16]의 연구에서 감성지능 0.53점(범위 0.36-0.62) 보다 낮은 점수여서 국외에 비해 국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감성지능은 교육이나 훈련에 의하여 향상될 수 있으므로[13]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을 보면 타인감성이해 3.68점, 자기감성이해 3.60점, 감성활용 3.28점, 감성조절 3.00점으로 간호대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감성에 대한 이해에 비해 감성의 활용과 조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hin[18]의 연구에서 7점 만점에 자기감성이해 5.14점, 타인감성이해 5.03점, 감성활용 4.66점, 감성조절 4.21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감성정보를 조직하고 활용하며 감성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증가시킬 때에는 감성활용과 감성조절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47점(범위 1-5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Choi[6]의 연구에서 3.56점보다 다소 낮은 결과이다.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실습시 다양한 간호상황에서 대상자와의 관계, 동료학생과의 관계, 문제해결능력, 실습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25점(범위 1-5점)이었다. 이는 본 연구대상과 같은 3년제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Jin[9] 연구에서 3.28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4년제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등[8]의 연구에서 3.49점보다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대상과 학년, 실습 교과과정, 임상실습환경이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임상수행능력 하위영역을 보면 전문직 발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간호과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과정은 임상실습시 대상자의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틀로서 실습교육시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강조되고 있지

만 6개월 정도 실습을 한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간호과정 적용능력을 기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6.66점(범위 0-10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대상인 3년제 2학년과 4년제 3학년을 대상으로 한 Shin[18]의 연구에서 3.03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4년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등[8] 연구에서 3.16점 보다는 다소 낮은 결과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서는 과제물 및 집담회가 7.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지도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5.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Shin[1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임상실습시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과제 및 집담회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 중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유사연구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Choi[28]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의사소통능력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r=0.66, p<.001$), Mun[15]의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대인관계능력($r=0.684, p<.001$) 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감성지능 하위영역 중 자기감성이해, 감성활용이 의사소통능력과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hoi[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로 간호대학생에게도 감성지능이 의사소통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의 핵심역량 중의 하나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이므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의 감정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 중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는 없으나 국외 연구가 있어 비교해보면 Beauvais 등[16]의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간호수행능력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26, p<.001$)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감성지능 하위영역 중 감성조절, 감성활용이 임상수행능력과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감정의 개입이 많은 임상실습상황에서 즉각적,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이를 해석, 재해석, 조절하고 나아가 긍정적으로 감성을 활용하여 자신을 동기화 하여

능동적인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료된다.

감성지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약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Shin[18]의 연구에서 약한 부의 상관관계($r=-.131$, $p<.001$)를 나타낸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국외 Por 등[17]의 연구에서 감성지능과 지각된 스트레스는 부의 상관관계($r=-.40$, $p<.001$)를 나타내어 감성지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감성지능 하위영역 중 자기감성이해가 다른 영역보다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간호대학생에게 감성지능 특히 자기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임상실습스트레스를 덜 느끼도록 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실습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은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시사하므로 간호교육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더불어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에도 기여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간호교육과정 동안에 길러야 할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규명하고,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임을 재확인한 것에 있다.

그러므로 미래에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은 간호전문직에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려는 노력과 더불어 감성지능과 같은 감성적 잠재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 향상시키고 임

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5점 만점에 3.39점,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3.47점,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25점, 임상실습스트레스는 10점 만점에 6.66점으로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은 보통수준이었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과 의사소통($r=.511$, $p<.001$), 임상수행능력($r=.464$, $p<.001$)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감성지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246$, $p<.001$)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 20.6%, 임상수행능력 11.7%, 임상실습스트레스는 2.7 %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감성지능이 높은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과정 동안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적극 요청된다.

References

- [1] D. Chan, "Development of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inventory: Using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learning environment studies to assess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the hospital as a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1(2), pp.69-75, 2002.
- [1] Trend Monitor, 2012 mVoIP Survey, TK_201207_NW_0876, trendmonitor.co.kr, 2012.
- [2] Venkatesh, V., Morris, M., Davis, G., & Davis, F.,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ward a unified view", *MIS Quarterly*, 27(3), pp. 425-478, 2003
- [3] Casey, T., Wilson-Evered, E., "Predicting uptake of technology innovations in online family dispute resolution services: An ap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UTAU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6), pp. 2034-2045, 2012.
DOI: <http://dx.doi.org/10.1016/j.chb.2012.05.022>
- [4] Im, I., Hong, S., Kang, M. 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echnology adoption", *Information & Management*, 48(1), pp. 1-8, 2011.
DOI: <http://dx.doi.org/10.1016/j.im.2010.09.001>
- [5] Kijisanayotin, B., Pannarunothai, S., Speedie, S. M., "Factors influencing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adoption in Thailand's community health centers:

- applying the UTAUT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78(6), pp. 404-416, 2009.
DOI: <http://dx.doi.org/10.1016/j.ijmedinf.2008.12.005>
- [6] San Martin, H., Herrero, A., "Influence of the user's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online purchase intention in rural tourism: Integrating innovativeness to the UTAUT framework", *Tourism Management*, 33(2), pp. 341-350, 2012.
DOI: <http://dx.doi.org/10.1016/j.tourman.2011.04.003>
- [7] Min, Q., Ji, S., Qu, G., "Mobile Commerce User Acceptance Study in China: A Revised UTAUT Model", *Tsinghua Science & Technology*, 13(3), pp. 257-264, 2008.
DOI: [http://dx.doi.org/10.1016/S1007-0214\(08\)70042-7](http://dx.doi.org/10.1016/S1007-0214(08)70042-7)
- [8] Shin, D.-H., "MVNO services: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MVNO diffusion", *Telecommunications Policy*, 34(10), pp. 616-632, 2010.
DOI: <http://dx.doi.org/10.1016/j.telpol.2010.07.001>
- [9] Zhou, T., Lu, Y., Wang, B., "Integrating TTF and UTAUT to explain mobile banking user adop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4), pp. 760-767, 2010.
DOI: <http://dx.doi.org/10.1016/j.chb.2010.01.013>
- [10] Shin, D., "What makes consumers use VoIP over mobile phones? Free riding or consumerization of new service", *Telecommunications Policy*, 36(4), pp. 311-323, 2012.
DOI: <http://dx.doi.org/10.1016/j.telpol.2012.01.004>
- [11] Liao, C.-H., Tsou, C.-W., "User acceptance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The SkypeOut case",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36(3), pp. 4595 - 4603, 2009.
DOI: <http://dx.doi.org/10.1016/j.eswa.2008.05.015>
- [12] Kim, M., Park, J., Paik, J., "Factors Influencing Adoption for Activating Mobile VoIP", *Management Enabling the Future Internet for Changing Business and New Computing Services,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5787, pp 470-472, 2009.
- [13] Davis, F. 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pp. 319-340, 1989.
DOI: <http://dx.doi.org/10.2307/249008>
- [14] Davis, F. D., Bagozzi, R. P., Warshaw, P. R.,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Management Science*, 35(8), pp. 982 - 1003, 1989.
DOI: <http://dx.doi.org/10.1287/mnsc.35.8.982>
- [15] Ajzen, Ick.,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pp. 179-211, 1991.
DOI: [http://dx.doi.org/10.1016/0749-5978\(91\)90020-T](http://dx.doi.org/10.1016/0749-5978(91)90020-T)
- [16] Taylor, Shirley, Peter A Todd, "Underst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A Test of Competing Model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6(2), pp. 144-176, 1995.
DOI: <http://dx.doi.org/10.1287/isre.6.2.144>
- [17] Taylor, Shirley, Peter Todd, "Assessing IT Usage: The Role of Prior Experience", *MIS Quarterly*, 19(4), pp. 561-570, 1995.
DOI: <http://dx.doi.org/10.2307/249633>
- [18] Moon, J, Y Kim, "Extending the TAM for a World-Wide-Web Context", *Information & Management*, 38(4), pp 217-230, 2001.
DOI: [http://dx.doi.org/10.1016/S0378-7206\(00\)00061-6](http://dx.doi.org/10.1016/S0378-7206(00)00061-6)
- [19] Bollen, K. A.,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Wiley, 1989.
- [20] Chau, P. Y. K., "Re-examining a Model for Evaluating Information Center Success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Decision Sciences*, 28(2), pp. 309-334, 1997.
DOI: <http://dx.doi.org/10.1111/j.1540-5915.1997.tb01313.x>
- [21] Kim, Bo Youn, Mincheol Kang, Sang-Gun Lee, "The Effect of Cognitive Absorption on the Individual Intention of Technology Acceptance: An Empirical Study on the MP3 Player",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6(1), pp. 45-68, 2006.
- [22] Browne, M. W. Cudeck, R.,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1(2), pp. 230-258, 1992.
DOI: <http://dx.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5>
- [23] C. Barrett, &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Advance Nursing*, 7(2), 364-371, 1998.
DOI: <http://dx.doi.org/10.1046/j.1365-2648.1998.00511.x>
- [24] W. H. Lee, C. J. Kim, J. S. Yoo, H. K. Hur, K. S. Kim, & S. M. Lim. "Development of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Journal Nursing Science*, 13, pp.17-29, 1990.
- [25] M.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5.

- [26] R. SLazarus, & S.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 [27] S. J. Whang,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a tool for the nursing students' clinical stress", Journal of the Margaret Pritchard College of Nursing, 14(1), pp.35-54, 2002.
- [28] E. J .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Rearing Attitude,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buk, 2012.

이 외 선(Oi -Sun Lee)

[정회원]



- 1998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1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감성지능, 성인간호

구 미 옥(Mi-Ok Gu)

[정회원]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졸업 (간호학 석사)
- 1992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졸업 (간호학 박사)
- 1984년 11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2012년 2월 ~ 현재 :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 회장

<관심분야>

근거기반, 당뇨